

제 5강 어떻게 하면 마음이 홀가분해질까?

-용왕 딸의 성불 이야기

《법화경》속으로 “깨닫기만 하면 찰나에도 부처가 될 수 있다”

● 버리면 비로소 얻는 것들

- 부처는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이 당신 것이 아니라고 했다.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잃을까봐 늘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. 하지만 그것들은 당신의 것도 아니요, 내 것도 아니다.

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면
그 무엇이 두렵겠는가?
이 세상이 당신을 어쩔 수 있겠는가?